간호원과 호스피스 캐어의 일예

오 진 숙
(강남 성모병원 내과 병동 수간호원)

Hospice care가 간호원에게 왜 필요한가? 종래에는 죽음의 순간이 가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근래에는 70%이상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요사이 내과 입원 환자중 알환자와 노인 환자, 만성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각종 특수 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을 자주 해야 하며 병원에서 지내는 생활이 장기화 되므로 보호자들이 갖는 심적, 경제적, 정서적 문제가 많다고 본다. 그러니 만큼 간호원과 의료진에게 기대하는 요구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암환자의 특성은 죽음의 인식으로부터 오는 공포와 통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나 간호원은 과중한 업무에 피달려 기계적이 되기 쉬우며 환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임종을 앞 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의료진의 일거수 일투족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으므로 환자들이 겪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같이 느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이해하여 주고 지지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간호원의 능숙한 간호와 따뜻한 관심과 배려, 환경의 안정성,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한다. 간호원은 환자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중의 하나로 임종을 앞 둔 환자와 보호자들의 만성적인 고통과 고뇌를 함께 나누며 효력있는 Loving care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없이 위엄을 유지하면서 사적인 상황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에서 죽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흔히 병원에서는 잘 이행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불필요한 처치나 검사, 또는 응급처치 등으로 더 더욱 고통을 가중 시키는 경우나, 중환자실로 옮겨 마지막 순간을 가족들과 떨어져 외롭게 맞이하게 되는 경우 등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간호원들은 평상시에 환자나 보호자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임종을 맞이 할 것인가를 결정시키며 이것을 의사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간호원은 이러한 권리를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하며 간호원 스스로의 영적 확립과 확신으로 임해야 하겠다.

간호원들은 1년~2년이 지나면 병실 생활에 익숙해지며 skill도 능숙해져 간호원 초기에 느꼈던 이상과 현실을 비교해 보며 회의와 갈등에 빠지고 레지리즘에 젖어 의욕 상실이 되기 쉽다. 이것은 우리가 간호 하는데 있어 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처치에 급급하기 때문에 마치 간호가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에 이른다. 간혹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등의 이유로 합리화 시키려 하나 막상 시간이 나더라도 개인적인 일로 소실하며 환자에게 시간을 할애하는데 인색하게 된다. Hospice care는 간호원에게 간호의 독특함과 긍지 자신감을 일깨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환자에게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할까? 필자는 1982년 12월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출근길에 갑자기 당한,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충격이 매우 컸다. 평상시에 임종 환자를 많이 대하게 되지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려해도 벼저리게 느껴오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어 고개 부터 가로 저으

며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환상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지워 버리기로 했다. 2개월후 다시 기관지천식(Asthma Attack)으로 한달이 넘게 입원하게 되였을때 죽음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와짐은 어쩔 수 없었다. 고통스러울때는 그 고통으로 부터 해방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 같으나 그 고통은 쉽사리 가셔지지 않고 언제 어느때 엄습 해올지 몰라 불안 해 지기 시작 했다. 그러나 회복 될 수 없는 병이였다면, 죽을 병이였다면 어떻했을까? 그런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때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누군가와 이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넘쳤다. 그러나 간호원들은 필자를 피하는 것 같았고 의사들은 너무 바빠 보였다. 필자가 간호원들의 감독자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관찰당하는 것 같아 불편 해 하는 것 같았다. 나를 두번 방문할 업무를 한번에 다 끝내 버리려 했다. 물론 필자도 그런 태도를 이해 할 수 있다. 부자연스러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할지,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무력함 때문이였으리라. 그러나 병이 나서 누워 있게 되면 누구나 환자다. 그 사람이 의사든 간호원이든 타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갓 환자일 뿐이다. 환자는 간호원을 항상 기다리며 그들이 눈길이라도 따뜻이 돌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간호원은 눈 맞기도 나가기에 바쁘다. 더우기 간호원이 임종 환자를 만나는데 주저하는 것은 많은 간호원들이 죽어가는 환자와 이야기 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와 같이 환자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무슨 도움을 언제 어떻게 주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환자와의 대화를 회피하며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된다. 환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에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의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호원은 기억 해 두어야 한다. 간호원은 환한 빛이다. 친절한 간호원은 환자에게 정말 천사 같은 존재다. 간호원은 의학적, 기술적인, 해결 뿐만이 아니라 한번의 손길, 미소, 눈짓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요구에 대한 충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원은 환자와 제일 친근하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 또한 Hospice care는 환자와 보호자를 한 단위로 보고 같이 care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위암으로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받던 김○○씨는 신앙이 깊으셨다. Hospice담당 간호원들은 방문하여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함께 했다. 몇일 후 임종하는 순간 Hospice Member는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 갔는데 그들은 간호원이 벌써 사후처리를 하러온 줄 알고 몹시 화를 내며 잠시만 더 시간을 달라며 저지했을 때의 당혹감이 잊혀지지 않는다. 병실을 나오며 보호자와도 긴밀히 접촉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후 보호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보호자의 심리적 갈등, 고통, 경제력에 대한 걱정 및 환자와의 성격, 가족·구성원과 가족에 있어서의 환자의 위치, 종교, 가족들이 환자를 피하는 태도, 병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게 되었다.

또한 가족들의 요구와 그들이 취한 개인적인 모든 상황까지도 감안 하게 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으며 가족들은 상담을 통해서 더욱 간호원과 긴밀히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보호자들은 입원할 때마다 간호원에게 환자 상태를 자세히 보고 해주며 앞으로 어떻게 한 것인가 의논하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 해 나가게 되었다.

한편 환자가 자신의 병명에 대해 알고 있을 때(그것이 부정이든 분노든 어느 과정이든지) 간호원은 더 쉽게 환자에게 접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혹 보호자들이 「환자에게는 비밀로 해 주십시오」 「지레 돌아 가실 것입니다」 「차마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하면 간호원은 그 사실에 얽매여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런 관계 유지가 어려우나 환자 스스로 병명을 알려고 노력할 때, 죽음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알려 줌으로써 환자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간호원과 환자, 보호자가 한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여 "선종"에 이르도록 도와야 함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간호원이 환자와 긴밀 해 지면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먼저 묻게 된다. 그것은 아주 기분 좋은 것이다.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당신을 돕겠다고 요청할 때의 기분은 서로를 밝게 하여 주며 기쁘게 해 준다.

한쪽 유방이 괴사를 일으켜 시꺼떻게된 유방암을 앓던 유○○씨는 목욕을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이였다. 간호원은 물론 영적 간호도 중요하지만 그에 뒷지 않게 신체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목욕을 시켜 준 후 더욱 돈독한 신뢰의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죽음을 당면하고 있는 한 환자를 따로 맡아서 care를 할 수도 있지만 담당 간호원이 그 환자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므로 신체적, 영적 요구나 문제도 동시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Hospice care는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며 특정 종교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본 병원의 경우 다행히 병원에 원목실이 있고 그 활동이 활발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은 것이다.

여기서 간호원의 종교적 밑바탕도 많이 좌우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런것을 기초로 하여 간호원의 인생 철학, 간호철학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간호원 자신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는가? 스스로의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 하고 있는가? 생명은 무엇인가?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속에서 자신을 재조명하며 인간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 가며 환자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반문 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매일 매일 환자와의 만남에 용기와 희망과 기쁨이 함께 느껴져야 한다.

이 지면을 통해 한 예를 소개하므로서 간호원과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강남 성모병원 내과에 입원한 여자 66세 이○○환자는 1984년 4월 17일에 입원하였다. 병명은 기관지암으로 판명되었다. 가족은 3녀 2남으로 모두 출가했으며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후 행방을 감추고 20여년간을 혼자서 자녀들을 키웠다. 평소 매우 건강했고 건장했으며 성격은 활달 쾌활하며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자립심이 강하여 누구에게 의지한다든지 동정받는 것을 매우 싫어 하였다. 자신의 병이 암이라고 단정한후 딸에게 물어서 확인 받은 후의 환자의 심리적인 과정과 간호원과의 관계를 소개 하려고 한다.

환자는 암이라는 사실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의 죽음(암)에 대한 두려움, 나약함을 감추려 했다. 평소 자신의 모습인 강하고 성숙한 모습만 나타내려 하고 심한 정신적인 갈등 근심, 슬픔등을 은폐시키려 했다. 그래서 환자로 하여금 충분히 표현하게 하고 열심히 들어 주었으며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나약한 모습이 아니며 솔직한 인간의 참 모습임을 일러 주었다.

환자 : (큰 소리로 의치듯) 간호원! 나 암이래요. 나 참 태연하죠. 나 아무렇지도 않다구. 아 귤쎄 진작 좀 가르쳐 주면 좀 좋아?(눈을 찡그리며 불만스러운 듯) 난 전혀 불안하지 않다구. 이런 사람 봤어요? 암이란 걸 알고도 이렇게 태연한.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까짓거 죽는다는게 뭐 그거 무서워?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은 죽는 거 아냐? 그렇죠? 간호원. 내가 뭐 알아야 정리 할 것 아니야. (신경질적으로) 이런 건 진작에 다 가르쳐 줘야 한다구.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나 큰 소리로 의치듯 강조하여 반복하는 말과 크게 껄껄 웃는 모습을 보며 환자가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불안정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간호원 : (환자가 암이라는 사실을 안 것에 약간 놀랐다) 누가 알려 주셨어요?

환자 : 딸에게 내가 바른 말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엄포를 부렸지. 딸이 지금 알려 주었어.

딸 : 엄마, 암이 치료 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

옛말이래요. 요즈음은 치료 될 수 있어요.(딸이 위로 할 말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환자 : 넌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날 위로 할 생각은 말어(피식 웃으며 화난 표정으로) 그런 위로 한다고 내가 좀 편안 해 질것 같아? 내 고통은 내가 당하고 내 자신만이 나를 위로하고 안정 시킬수 있는 거야. 잠자코 있어. 간호원—(웃으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난 암이라는 말 듣고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내가 폐결핵이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 했는지. 암이라니 얼마나 다행이야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다구. 안 그래요?

간호원 : 그렇게 생각 하셨어요?

환자 : 폐결핵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잖아. 그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암이라니 다행이지. 이제 정리를 해야겠어 정리 할 게 많잖아. 그런데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온다오. 창피하게 주책없이 딸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눈물이 이렇게 자꾸 나오니 왜 그렇지요?

간호원 : (환자는 자신의 병이 결핵일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해온 것일 지도 모르고 암이 아니라 결핵이였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여러번 결핵에 대해 되풀이 말씀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우는 것이 창피 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솔직한 자신의 심정이 아닐까요? (가만히 환자의 등에 손을 얹었다)

환자 : 맞어 이렇게 울고 나면 또 시원한게 있다오. 그게 신기해. (환자가 눈물을 닦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간호원 : (환자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환자 : 영감, 그 영감? 내 솔직히 말 좀 해 볼까?(숨긴 걸 터뜨려 놓듯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자식 말이야 사업하다 몇 억 부도내고 경찰에 쫓기다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아들 딸 공부 시키고 시집 장가 다 보냈다구. 난 모든 걸 내 혼자 했다구요.

간호원 : 참 장하시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딸 : 우리 엄만 치마만 둘렀다 뿐이지 남자예요. 참 활달하시고 누구의 도움도 싫어 하세요. 심지어 우리 자식들 까지도. 혼자 척척 해 내시지요.

간호원 : 지금 특별히 불편 하신 것은 없으세요?

환자 : 머리를 망치로 한대 꽝 얻어 맞은것 같이 멍해요.

간호원 : 그러세요, 참 큰 충격이셨죠? 이제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 해 주실거예요. 앞으로 우리 간호원 모두가 할머니와 늘 함께 있으니 필요하신 것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을 찾으세요. 옆에 함께 있다고 크게 고통을 덜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혼자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함께 나누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환자 : 정말 고마와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니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고마와요.

간호원 : 그럼 편히 쉬세요.

딸이 따라 나오며 정말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참 강하시죠 그렇죠?」 하고 말한다. 딸을 위로 한 후 환자의 지금의 내적 갈등을 읽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말씀 드렸다. 그 다음날 어제의 자신만만하던 태도와 달리 우울한 표정으로 다니시며 잘 우신다. 자식들에게 고함도 치고 공격적이 되셨다. 환자의 분노의 표현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며 보호자들에게로 이런 심리 상태를 알려 주어 이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시 환자를 방문 했다.

병실에는 60대 정도의 권사 세 분이 오셔서 누워 계신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들 하고 있었다. 환자의 표정이 거부감에 가득찬 불만스런 표정으로 반대쪽을 응시하고 계신다. 그냥 나왔다. 환자가 있는 호실을 지나는데

환자 : 지가 하나님이나 돼? 예수야? 뭘 한다고 난리들이야.

(온통 고함을 치며 병실 중간에 서서 손가락질 하면서 부르르 떨며 호통이시다) 환자가 있

는 방에 들어 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환자의 분노가 간호원에게로 투사 될 것이 두려웠다. 환자는 이제 겨우 자리에 앉아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간호원 : 좀 어떠세요.

환자 : 글쎄, 권사면 권사였지 자기들이 뭔데 내 명을 낫게 해 준다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난리들이야. 그것도 말이야 내가 좀 안정 된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면 집에서 각자 기도하면 되잖아. 왜 와서 난리들이야. 왜 날 괴롭히는 거야 저 자식들이(아들이 창가에 민망해 하며 서 있는데) 그렇게 못 오게 하라 했는데 데리고 왔잖아. 기도를 하는데 내 목까지 부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어. 참다 참다 내 한바탕 해댔지. 글쎄 그러니 내 얼마나 큰 창피고 망신이야. 못할 짓을 했잖아. 그러니 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있어? 그래서 혼자서 산책을 했지. 바람이 견딜만 하더군. 그래도 머리를 꽝 얻어 맞은 듯한 그것은 가시지 않더군—계속 그래. (겨우 가라앉은듯 환자는 이불을 재치고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며 굳이 앉으라고 권한다)

환자는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내가 못 할 짓도 않했는데 왜 그렇게 나쁜 병에 걸렸냐고 물으신다. 환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벌을 내리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다시 눈물을 흘리신다. 분노와 죄책감과 우울속에 쌓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간호원 : 감당 하시기가 어려우시죠? 차라리 병명을 모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환자 : 아네요. 어차피 알게 된 걸 뭐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살피게 되니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유. 그런데 간호원 이런 환자 많이 봤우?

간호원 : 네, 좀 있으세요.

환자 : 지금도 있어요? 네?(뭔가 발견한 듯) 나 좀 만나게 해 줘요.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꼭 좀 만나 보고 싶어요.

간호원 : 지금은 안 계시고 얼마전 퇴원 하셨어요.

환자 : 꼭 알아 봐 줘요. 전화번호라도 사람이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지 않아요?

간호원 : 지금 무엇이 가장 궁금하세요?

환자 : 그 치료가 아프답디까? 아프면 어떻하죠? 골수암으로 다리 절단하고 7년째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과 딸이 골수염인가 뭐로 다리를 절어요. 살긴 살더군. 치료는 되나요?

항암요법에 대해 알기 쉽게 말씀 드렸다.

환자 : 그봐! 이렇게 알려주니 얼마나 좋아. 오늘 운 보람이 있네. 우리 애들은 아무 것도 몰라. 이렇게 자세히 알려줘야 내 명심했다가 지키잖아. 궁금한게 없어지고.

간호원 : 대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셔야 돼요. 체력관리도 잘 하시구요.

환자 : 응 그래. 이렇게 뭘 알아야 준비도 하고 각오도 하잖아. 난 하면 만사에 열심이라구. 그런데 한가지 후회하는게 있다면 이런 검사하지 않고 차라리 몰랐으면 여행이라도 하고 다니다가 인생 기쁘게 살다 정말 아파서 그런 진단 나오면 기력이 없어 그냥 죽을 것아냐? 괜히…

간호원 : 그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지요. 누구나 자신의 앞날을 알 수는 없으나 어느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 하는 것보다 서서히 준비하며 사신다면 삶이 아쉽지만 또한 고마운 시간이 되고 값지고 깨끗한 죽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내적으론 큰 변화임에 틀림없으나 용기 가지시고 끝까지 희망 잃지 마셔야죠. 언제든지 얘기 하고 싶으실때 찾으세요.

환자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매우 피곤해 보이고 혼자 있게 함이 좋을 것 같다. 피곤하시죠? 이○○씨의 평화를 빌어 드리겠어요.

환자 : 고마와요. 안녕히 가세요. 이 주책이 또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항암요법을 시작 하기 몇일 전 환자는 외출을 하고 오셨다.

간호원 : 외출 잘 다녀 오셨어요? 좀 어떠세요.

환자 : 어찌 이리 오랜만이죠. (악수를 한다) 아휴 얼마나 고마왔는지 몰라요. 내가 가장 약해 있을때에 내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내가 큰

용기를 얻었다오. 외출도 다녀와서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 했어요.

간호원 : 어디를 다녀 오셨어요?

환자 : 집에 갔다 왔어요. 이것 저것 정리 좀 하고 사진도 크게 하나 찍었죠. 독사진으로. 이 머리가 이제 다 빠질 것 아니우. 그러니 사진을 찍어뒀지.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 사진은 아마 최후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찍었을 환자의 마음이 전해져 마음이 찡 해 왔다.

환자 : 일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요. 갖고 있던 부동산도 대강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책 한 권 사 왔어. 「일어나 비추어라」라는 책인데 간호원 읽어봤우.

간호원 : 심심하실때 읽어 보세요. 느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말씀 해 주세요. 환자는 화학요법이 끝난 후 퇴원하셨다.

환자의 영적인 근심은 평소 건강했던 때 교회에 가끔 갔으나 깊은 종교적 체험을 했거나 성숙한 단계는 아니였고 교회에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병이 났다. 신앙심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고 우울하고 우는 등 감정의 변화를 많이 보였다. 이것을 볼때 환자에게 영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삶의 기쁨을 포기해야 하는데 대한 아쉬움, 병의 경과에 따른 불안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환자는 우울하고 슬프고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게 된 상태였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으로나 다복 하다고 볼수 있으며 개인사업을 하여 인간관계를 많이 해 왔는데 이제 질병으로 인해 고립될 것 같은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을 느껴 답답해하며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간호원들은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혼자 처리 하도록 외롭게 내 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때론 충분히 자신을 표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겠다. Hospice care는 간호원에게 새로운 사랑과 관심과 아픔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간호원인 나를 생각해 보게 만든다. 우리가 하는 일 때로는 하찮게 보일 지 모르나 때로는 한 환자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될수도 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됨을 감사 드린다.